

“GM공장 정상화” 전북 지자체 힘 모은다

전북지사·14개 시군 단체장 비상대책회의서 결의문 채택 지역경제 위기 극복 공조키로

전북도와 지역 14개 시·군이 한국 GM 공장 정상화의 정상화와 지역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이 입주한 6개 시·군은 업체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 도내 14개 지역 시장·군수는 26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한국 GM 공장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서남대 폐교에 이어 GM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기특이나 허약한 전북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GM 공장 정상화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국 GM 공장 폐쇄 사태를 계기로 모든 시군은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한 뒤 서민경제가 침체하지 않도록 위기극복을 가지고 협업에 총력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 도내 14개 지역 시장·군수는 26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한국 GM 공장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GM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 제공>

기울어달라”고 주문했다.

단체장들은 ▲GM은 공장 폐쇄 결정 즉각 철회 ▲정상화를 위한 생산물량 및 신차 배정 보장 ▲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GM과 협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 즉각 실천,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통 경감과 친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이행 등도 결의문에 포함했다.

GM 협력업체는 군산 81개, 익산 23개,

정읍 5개, 김제 11개, 완주 8개, 전주 6개 등 도내 6개 시군에 134개가 있다.

결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등 정부 각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연휴뉴스

군산시,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 운영

3월말까지 강력징수 예고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3월말까지 징수와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과 차량의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부정보등록, 예금 및 보험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

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지엠 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유예를 하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방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세 체납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sugu@

‘4·19 혁명 도화선’ 김주열 동상 건립

남원 추모공원에 설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1943-1960) 열사의 동상이 그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금지면에 세워진다.

동상은 6000여만원을 들여 좌대를 포함, 3m 높이로 만들어지며 김 열사의 고향에 조성된 추모공원에 설치된다. 오는 4월 열리는 4·19 혁명 58주년 기념

기념 이전에 완성할 예정이다.

남원시 금지면 출신인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다 주검으로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작년에는 15억 원이 투입돼 김 열사의 묘역 주변에 추모관과 기념관 등을 갖춘 추모공원을 복원한 추모공원이 조성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여수 GS칼텍스-노사정 2조원대 신규 투자 ‘협력’



지난 23일 주철현 여수시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서울 GS칼텍스 본사를 찾아 허진수 회장과 면담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직원 채용에 여수시민 가점제

GS칼텍스가 여수에 2조원대 신규투자에 나서며 여수시와 노사정 대표들과 협력을 약속했다.

여수시는 주철현 시장과 임종길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 박형근 여수경영인협의회장, 김종기 여수산단건설협의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GS칼텍스 본사를 찾아 허진수 회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과 노사정 대표들은 최근 GS칼텍스의 발표에서 2조원대 신규투자와 직원 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를 약속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투자 과정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요청했다.

허 회장은 “회사자산 대부분 여수에 있어 지역 업체에 참여는 당연하다”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시장과 임 지부장 등은 여수국가산단 안전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최저가 입찰제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GS칼텍스는 지난 7일 여수 제2공장 인근 43만㎡ 부지에 약 2조 원 대 금액을 투자해 석유화학 분야인 올레핀 생산시설(MFC)을 짓기로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정읍시, 내수면 양식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 나선다

올해 5억6000만원 투입

낙시레저 자원 조성 등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 꾀해

정읍시가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정읍시는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민물고기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억6000만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양식에 필요한 수차와 펌프, 수중모터 등의 기자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및 수질 정화제는 물론 토질 개선용 황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노후화된 양식시설 현대화와 개보수, 청정 지하수 개발과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시는 아울러 수산자원 증식과 낙시레저 자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자체예산 7500만 원을 투입해 수산종묘 매일 방류와 낙시레저 친환경 화장실 개선사

업 등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토속 어류(메기·다슬기·붕어·동자개 등 경제성 어종)의 치어 86만여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화장실을 친환경으로 개선하는 등 어민 물고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낙시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과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등 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지역은 내수면 양식업에 필요한 전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어업인 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업인 맞춤형 시책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전북도 내수면 어업의 중심지로 만 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에서는 지난해 메기와 미꾸라지, 동자개, 뱀장어 등 565t과 총묘 360만 마리가 생산됐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부안군, 명품 수박단지 지원

1억8000만원 사업비 확보

부안군은 고품질 명품 수박 생산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부안 수박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한 ‘2018년 명품 수박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농지에 수박을 재배하는 작목반 및 농가다. 사업 규모는 총 90ha다.

군은 총 1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ha당 수박 우량묘 200만 원, 자가용묘 자체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 및 농업인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오는 3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안 수박은 황토에 함유된 미량원소와 인산성분이 많아 영양분이 많은 곳에서 생산돼 향긋한 맛과 식감이 전국 최고로 꼽힌다. /부안=서충원기자 scy@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20만원 (평당)
- 문의. 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북이면 장성면 11953㎡(3615평) 매도 6억4천
- 완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민박주택형 분할가 2억4천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물 117㎡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문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2억
- 해남군 화양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접 1억3천
- 금남로5가 대로상업지 608평형 병행 오피스텔 아울렛용 52억
- 담양군 월산면 기든 땅 1568㎡ 상가주택과 교환 원 7억
- 순창군 인계면 김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제주도 서귀포시 별장 땅1100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접 4억천
- 충장로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 월산동 월산아파트옆 664㎡ 주택·사할 적합 4억6천

상가건물

- 순천만 팬션 땅 332㎡ 2층건물 285㎡ 객실8 은행 3억포함 6억7천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물 1001㎡ 10억5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물 1164㎡ 12억5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물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의 주택(3층) 189㎡ 4억6천

급매

-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답 2002㎡ 차량진입 은행 3700 매도 3500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창고 등 적합 4500만원
- 신안군 암해읍 복룡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4600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문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안, 월4백만, 인접)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토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양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자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3억2천(물류창고 아적합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모텔허가 특)
- 남평읍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담양군 대전면 성리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 답 2,240㎡ 매 4억6천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5억원 (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완료, 버닷가토지, 남동향, 펜션, 커리안,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정덕동 롯데마트 부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